

“국민 여러분! 제대로 망가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으로 2년 만에 복귀
최·시·원

연기자 최시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KBS 2TV 드라마 ‘국민 여러분!’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밤 첫 방송한 드라마를 통해 최시원은 2017년 반려견 사건과 논란 이후 2년 만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평소의 유쾌함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시종 진지한 자세로만 입했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연기자 최시원(32)은 개인적 문제로 2년간 활동을 쉬 뒤 1일부터 KBS 2TV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을 통해 시청자와 만나기 시작했다. 이날 밤 첫 방송을 앞두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날”이라며 2년만의 공식적인 자리가 못내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신작에 임하는 각오는 숨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팔색조 매력의 캐릭터를 통해 완벽하게 공백을 만회하겠다는 강한 집념을 드러냈다.

사기꾼 캐릭터로 현실과 정치 풍자 아내 역할 이유영과 키스신 역대급 2년 전 사건,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 “폭 넓게 캐릭터 표현하기 위해 노력”

최시원은 ‘국민 여러분!’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어 ‘3대째’ 사기행각을 벌이는 인물을 연기한다. 극중 ‘평범하게’ 사기를 쳐온 그는 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하는 순간에 봉착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사업가 등 행세를 한다. 수많은 사기행각을 벌이면서도 단 한번 경찰에 잡힌 적 없는 그는 경찰과 결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까지 처한다. 드라마는 이 같은 캐릭터와 이야기로 현실의 부조리와 정치 세태를 유쾌하게 풍자한다.

이렇듯 소고를 틈 없이 캐릭터의 웃을 갈아입는 최시원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이를 표현하느라 현장에서는 늘 분주하다. 그는 “여러 직업을 맡는 설정이어서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캐릭터의 단편적인 부분보다 이를 폭 넓게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출자 김정현 PD는 “최시원이 유연하다”면서 “눈치가 빨라 제가 전달하는 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한다. 평소 시청자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이미지에 의외성을 주려는 욕심을 잘 표현하고 있다”며 만족해했다. 함께 출연하는 김의성도 최시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는 “최시원이 현장에서 PD에게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며 “주연 연기자 열정이 어떻게 드라마의 성공을 이끌지 궁금하다”고 기대했다.

이날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최시원은 제스처, 표정, 눈빛 등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인물을 표현해냈다. 뻔질거리며 임

기용변에 능수능란한 모습에선 더욱 그랬다. 얼굴이 일그러지는 코믹 장면에서는 망가짐도 불사했다.

“얼굴을 곱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막 쓴다고 하더라. 하하! 특별히 코믹함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았는데 한정우 작가님의 대본에 충실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대본대로만 열심히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대역 이유영과 맞추는 부부 호흡도 볼거리로 꼽힌다. 경찰관인 아내 앞에서 기를 펴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과 사기꾼인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통해 최시원이 색다른 매력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보통 부부들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이유영과 많은 키스 장면을 찍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 쉽게 떨치지 못한 긴장감

최시원은 이날 제작발표회를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드라마나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2년 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으로 인해 빚어진 사고에 대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다. 한번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기에 일부러 피하지는 않았다.

그는 “저와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 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2년의 마음고생을 하고 다시 나선 만큼 최시원은 긴장감 속에서 ‘국민 여러분!’에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드라마는 그가 연기자로서 재평가를 받는 무대와도 같다. 2015년 군 입대 직전 출연한 MBC ‘그녀는 예뻤다’를 통해 연기자로 인정받고 입지를 다진 성과를 다시 이룰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17년 8월 군 제대 복귀작인 tvN ‘변혁의 사랑’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고 그해 사고까지 겹친 탓에 그 스스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힘주어 말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최시원

▲1987년 2월10일생 ▲2012년 인화대 연극영화과 졸업 ▲2004년 KBS 2TV ‘부모님 전상서’로 연기 시작 ▲2005년 그룹 슈퍼주니어로 데뷔. 이후 드라마 ‘봄의 왈츠’ ‘아테나: 전쟁의 여신’ ‘포세이돈’ ‘드라마의 제왕’ ‘그녀는 예뻤다’ 등 ▲2010년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오! 마이 레이디) ▲2017년 8월18일 의무경찰 전역 ▲2017년 tvN ‘변혁의 사랑’ 주인공

연예뉴스 HOT 5

구하라 “성형 NO, 안검하수 수술”



구하라

안검하수 논란을 모은 그룹 카라 출신 구하리가 1일 입장을 밝혔다. 안검하수는 위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눈꺼풀 처짐 현상을 말한다. 최근 눈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인 구하리는 이날 SNS를 통해 안검하수 수술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악플과 심적인 고통으로 상처 받아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른쪽 눈의 불편함 때문에 자신을 아프지 않게 돌보려고 했다”고 덧붙혔다.

성폭행 의혹 김형준 ‘복면가왕’ 통편집



김형준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그룹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이 출연 프로그램에서 통편집된 사실이 1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형준은 당초 3월 31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 연예인 판정단으로 출연해 녹화를 마쳤다. 하지만 본 방송에서는 등장 장면이 대부분 편집됐다. 김형준은 2010년 5월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피소됐다. 이에 김형준 측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이뤄졌고 강압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테리우스’ 박상훈, 올해의 PD상



박상훈 PD

MBC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의 박상훈 PD가 한국 PD대상 ‘올해의 PD상’을 수상했다. 1일 한국PD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한 제31회 한국PD대상 시상식에서 ‘내 뒤에 테리우스’ 박상훈 PD는 드라마 부문 TV작품상을, ‘PD수첩-고 장자연’ 편의 김정민 PD는 시사다큐 부문 TV작품상을 각각 받았다. 김 PD를 비롯한 ‘PD수첩’ 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파업전야’ 30년 만에 극장 개봉



파업전야

한국 독립영화의 대표작 ‘파업전야’가 30년 만에 극장 개봉한다. 명필름문화재단은 1일 1990년 작품 ‘파업전야’를 4K 디지털 마스터링해 5월1일 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파업전야’는 노동자의 꿈과 현실을 담아 낸 리얼리즘의 수작으로 꼽힌다. 이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과 ‘접속’의 장윤현 감독 등이 연출한 작품으로, 제작사인 장산꽃매는 1990년 4월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영하려다 당국의 제지에 격렬하게 맞섰다.

안현모, 유관순 열사 영어 영상 제작



안현모

방송인 안현모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어 영상을 제작했다. 안현모는 1일 충남 천안 아우내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함께 만든 ‘유관순, 그리고 8호실의 기억’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4분짜리 영상은 유관순이 서울 서대문형무소 8호실에 수감된 채 벌인 독립운동 과정을 담았다. 안현모는 이번 영상에 제능기부 형식으로 참여, 영어 내레이션을 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